



## 화단 및 분화용 등굴레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Native to Korea.



**송정섭**  
농업연구관,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얼핏 보면 은방울꽃을 닮았고 처음에 신초 나올 때 보면 애기나리나 윤판나물을 닮은 등굴레, 잎이나 꽃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우리 자생식물 중의 하나이다. 산행을 하다보면 반그늘 정도 지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아직도 흔히 볼 수 있다. 조금 그늘져 어두운 곳에서 꽃이 빛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영낙없이 등에 호롱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다. 종류도 많아 그냥 등굴레에서부터 키가 작은 각시등굴레, 꽃이 큰 왕등굴레, 꽃이 쌍으로 피는 용등굴레,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등굴레 등 다양하다. 등굴레는 쓰임새도 다양하다. 추위에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루 반그늘 정도 지는 곳이면 정원이나 화단에 관상용으로 이용되며, 어린 순은 나물로, 땅속의 뿌리를 줄기는 차나 약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무늬등굴레는 잎에 무늬가 선명하여 꽃꽂이용 소재(절엽)로도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다.

### 1. 생태적 특성

등굴레는 봄과 여름의 경계에 꽂이 피기 때문에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다. 꽂은 대부분 흰색으로(윗부분은 연한 녹색을 띤다) 길다란 종처럼 생겼으며 대부분 아래를 향해 늘어져 핀다. 땅속의 뿌리는 뿌리줄기를 형성하며 마디사이마다 가는 뿌리들이 나온다. 추위에 강해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지만 겨울에 지상부는 말라 죽는다. 정상적으로 꽂이 피려면 봄에 피는 온대성 숙근류처럼 어느 정도의 저온을 받아야 하는데, 2-3°C에서 45일정도 경과하면 충분하다.



▲ 자생지에서 등굴레의 개화 모습



▲ 각시등줄레를 앵초와 혼합식재한 분경



▲ 무늬등줄레를 실내 분경용으로 이용하는 광경



▲ 자생지에서 등불처럼 빛을 발하는 광경

## 2. 재배기술

### 가. 번식

번식은 봄, 가을에 영양번식 또는 종자번식을 한다. 영양번식은 주로 포기나누기로 하는데, 봄에 하는 경우 쪽이 트기 전에 해야 한다. 충실한 눈을 가진 지하경 한 마디에는 2~3개의 눈이 붙어 있는 것이 보통으로 실한 눈을 기준으로 3마디 3눈을 한 포기로 나눠준다. 번식량을 늘리려면 1마디 1눈으로 잘라서 해도 된다. 그러나 대량재배를 할 경우는 실생으로 하는 것이 단기간에 많은 량을 생산할 수 있다.

등줄레 종자는 휴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종자로 번식하려면 먼저 휴면을 깨줘야 한다. 즉 잘 성숙한 충실한 종자를 골라 하루정도 물에 불린 다음 저온

습윤한 상태(젖은 천으로 감쌈)로 4°C의 냉장고에 한달정도 두었다가 뿌린다. 등줄레 종자는 암상태에서 발아가 촉진되므로 씨앗을 뿌린 후 어두운 곳에 두어야 발아율이 높다.

### 나. 정식 및 관리

정원에 심든 묘를 대량으로 재배하든 등줄레의 정성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광(30-50%)이 필요하다. 또한 등줄레는 건조에는 웬만큼 견디지만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 대량으로 재배할 때는 높이 20cm의 이랑을 만들어 봄에는 3~4월, 가을에는 9~11월에 포기 사이 30×35cm 간격으로 심는다. 묘를 심은 다음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야 하며 심은 포기들이 새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제초작업을 잘 해줘야 한다. 정원의 화단에 심을 때는 거름기가 있는 낙엽 활엽수 아래 심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 휴면기에도 장기간 가물면 보름에 한번정도 물을 주어야 한다. 가을에 잎이 마르고 휴면에 들어갈 때 유기질비료를 주면 이듬해 튼튼한 쪽이 나온다.

### 다. 병충해 방제

여름철 고온다습할 때 연부병, 뿌리썩음병, 탄저병 등이 가끔 생기므로 묘를 전문적으로 생산할 때는 재배상의 물빠짐을 좋게 하여 과습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며 장마 전후에 예방위주로 1-2회 살균제를 뿌려주거나 발생 초기에 즉시 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